

근대 문학의 受容 過程에 관한 一 考察*

- 金祐鎭의 경우 -

장선희**

<차 례>

1. 서론	3.1 시인 김우진
2. 김우진의 봉건성과 근대성	3.2 비평가 김우진
2.1 김우진의 봉건성	3.3 극작가 김우진
2.2 김우진의 근대성	3.4 소설가 김우진
3. 김우진의 문학활동	4. 결론

1. 서론

시대적 전환기는 그때까지 시대와 사회를 유지하여 오던 구문화와 새롭게 유입되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신문화가 치열한 갈등과 충돌을 거치면서 조율과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문화와 신문화의 충돌의 강도는 시대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미미한 파장을 남기며 지나갈 수도 있고, 거대한 충돌을 일으켜 개인과 사

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시대적 전환기에 발생하는 구문화와 신문화의 충돌은 한 개인과 사회를 분해시켜 버리거나 파괴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는 갑작스럽게, 강제적으로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충분한 준비와 시간적인 여유 없이 던져진 근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그에 따른 파장과 적응의 과정 또한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더욱이 예리하고 기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한 이들에게 던져진 시대적 변화는 전환기의 특별한 이행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 한 젊은이가 있다. “여명(黎明)에 서 있는 젊은이. 낡은 전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생활의 새벽이 마약 밝아올 때, 숨막히고 게다가 무엇인가를 구하려 하는, 잿빛과 옅은 붉은 빛 가운데서 있는 조선의 젊은이.”¹⁾는 김우진이다. 김우진(金祐鎭, 1897~1926, 號: 焦星, 水山)은 “근대 지식인이 직면한 사회와 개인의 문제에 도전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패배한 모델 케이스로 역사 속에 매몰된 요절 천재”²⁾라고 평가될 만큼, 봉건과 근대의 충돌을 가장 치열하게 겪었던 인물이다.

본 고에서는 근대전환기에 전통과 근대의 여명의 사이에 서 있던 한 젊은이 -김우진-의 문학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근대 문학의 수용과정과 근대 전환기의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기본 자료³⁾로는 김우진의 부친인金星圭(1863~1935, 號: 草亭)의 문집인 『草亭先生文集』 I-III 과 서연호·홍창수가 정리한 『김우진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광주보건대학 교내 연구비 수혜 논문임.

** 광주보건대학

1)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연극과 인간, 2000년, 494쪽. 1921년 11월 20일자 일기에서 발췌.

2)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23쪽.

3)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I-III, 『한국역대문집총서』 1778~1780, 경인문화사.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II, 연극과 인간, 2000년.

전집』 I-III을 활용하였다.

2. 김우진의 봉건성과 근대성

2.1 김우진의 봉건성

근대 전환기에 보수와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였던 곳은 가정이었다. 가정이란 사회의 최소 단위로써 그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각 가정마다의 고유한 질서가 공존하는 곳으로 신·구 문화가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유교적 가족제도이다. 유교적 가족제도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孝中心의 制度이며 가정의 중심을 부부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父子간의 關係로 보는 것이다.⁴⁾ 父子가 중심이 되는 가족관계는 孝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데, 이 때의 孝는 父母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한다. 근대전환기는 그때까지 사회를 유지하여 오던 효 중심의 가족관계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부부 중심의 서구적 근대 사상과 만나면서 치열한 쟁점을 벌였던 시기였다.

우리 근대문학에는 한 가족의 계보와 세대간의 갈등, 혹은 가문의 붕괴 과정을 주제로 다룬 가족사 소설이 많다. 이들 작품에서 보이는 가족관계는 모두가 아버지의 가부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지배받으며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관혼상제와 같은 유교적 전통 의례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그때까지의 수직적인 봉건적 가정질서가 수평적인

서구적 근대 사상과 만나면서 일어났던 충돌들이 소설 속에서 재현되었던 것이다.

“20년대의 귀재”⁶⁾이자 “선구적 지식인”⁷⁾으로 평가되는 김우진이 근대의 “여명”을 밝혀보지도 못하고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였던 “요절 천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아버지로 대표되던 봉건적 가족제도의 거대한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⁸⁾

2.2 김우진의 근대성

2.2.1 김우진의 언어의식

김우진에게서 드러나는 근대의식의 한 면은 국문에 대한 각성과 인식이다. 근대의식의 한 특징을 자국어의식으로 본다면 김우진처럼 탁월한 언어감각을 가지고 여러 외국어를 섭렵하고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그 결과로 자국어의 가치 발견에 도달한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김우진은 처음에는 한자를 상용문자로 사용하였다. 김우진의 한문구 능력은 어렸을 때 배운 유교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었을 것이다. 김우진은 어렸을 때는 부친이 설립한 先憂義塾에서 수학하였다. 선우의 숙⁹⁾은 김성규가 벼슬에서 물러나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장성에 돌아와

5) 김상태 편, 『근대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문학』, 푸른사상, 2003, 60~65쪽.

6) 유민영, 『초성 김우진 연구(上)』, 『한양대학교 논문집』 5, 1971, 89쪽.

7)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23쪽.

8) 김우진과 부친 김성규의 생애와 갈등에 관해서는 즐고, 『근대전환기 新·舊 文化의 衝突과 受容에 관한 연구- 목포지역 金星圭와 金祐鎭의 경우 -』, 『고시가연구』 제1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8 참고할 것.

9)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Ⅲ,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85쪽 : 家君於乙巳春歸田之日 設一私校於東山洞 名之曰先憂義塾 廣購書籍延聘新舊學教師 教育親族子姪及有志青年 以實用之學兼以農業爲一科 …….

4)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30~33쪽.

세운 사립학교였다. 혁신적 개화주의자¹⁰⁾였던 김성규는 이 학교에 新·舊學의 教師들을 延聘하고 實用的 學과 농업으로 친족의 자녀들과 뜻이 있는 청년들을 교육하였다. 그는 동양의 성인이 만든 유교의 본뜻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편안케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혼란한 때일수록 大儒者가 출현하여 동양민족과 세계인류를 구원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철저한 유학자였다.¹¹⁾ 또한 그는 밀려 들어오는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녀들을 강인하고 매섭게 유교적 덕목으로 훈육하였다. 이러한 부친의 가르침과 훈도에 따라 철저하게 교육받으며 성장한 김우진은 ‘봉건적 윤리 감각¹²⁾’과 유교적 교양을 몸에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의식의 밑바닥에는 孝가 가장 큰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김우진의 한문구사능력은 한시를 짓거나 글을 짓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 김우진이 남긴 작품이나 일기, 기타의 글 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한문을 구사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특히 농업학교 졸업반이던 22세(1918년)여름에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록하였던 「草心亭實紀」¹³⁾는 부친이었던 김성규의 삶과 사상, 출사와 처사, 가문의 내력 등을 한문으로 저술한 일대기였다. 이밖에도 김우진이 지은 한시가 『草亭先生文集』 I에 5수 실려 있다.¹⁴⁾

10)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20쪽~21쪽 : ... 조부님은 개화파이셨다...

1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5쪽, 379쪽 : 家君嘗語人曰東洋聖人之儒教宗旨 本在於濟斯民安萬世也...吾願此時出大儒者救此東洋民族而並救世界人類 父曰吾願吾子孫世世究得儒教眞理爲大儒者...

12)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241쪽.

13)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III,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36~394쪽.

14) ① 『草亭先生文集』 I, 「草亭集」 卷之一, 112쪽 : 船中吟示二兒

② 『草亭先生文集』 I, 草亭集, 卷之二, 150쪽 : 次祐鎮在熊本送來詩韻 時雲藍自京城歷訪拓齋來會

③ 『草亭先生文集』 I, 「草亭集」 卷之二, 155쪽 : 次尙州枕泉亭板上韻

김우진은 11살(1907년)때 집안에 침입한 도적들을 피하여 목포로 이주한 부친을 따라 목포로 내려와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 일년을 수료하였다. 김우진은 이들 학교에서 근대식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는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였다. 실제로 그의 논문이나 평론, 수필, 일기, 시, 소설 등의 상당한 양이 일본어로 쓰여졌다.¹⁵⁾

김우진은 영어실력도 뛰어났던 듯 하다. 김우진의 독자이면서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였던 김방한 교수에 따르면 김우진은 농업학교 시절에 특히 영어를 잘 하였으며, 목포 집의 별채 2층에 있던 김우진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서가에 꽂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책이 영어 원서였다고 한다. 김방한은 서재의 이러한 분위기에 끌려 영어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심을 느끼게 되었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회상하였다.¹⁶⁾ 김우진이 1913년(17세)에 쓴 첫 번째의 문학작품인 소설 〈공상문학 空想文學〉의 맨 앞장에는 윌트 휘트먼의 시가 적혀 있는데 이 시가 창작 당시에 붙여진 것이라면 김우진의 영어 학습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우진이 연극과 문학비평, 외국 작품의 번역 및 소개 등에 탁월한 안목과 능력을 발휘하고 “20년대 최고의 연극인인 동시에 선구적 지식인”¹⁷⁾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기인하였다. 『김우진전집』에 보면 그의 영어논문 및

④ 『草亭先生文集』 I, 草亭集, 卷之二, 158쪽 : 成趣園 己未七月初七日 附 祐鎮學窓吟

⑤ 『草亭先生文集』 I, 草亭集, 卷之二, 175쪽 : 題華陽亭五首

15) 김우진이 남긴 시 53편 중에서 일문시가 9편이며, 소설 2편, 연극평론 4편, 문학평론 3편, 수필 2편 등을 비롯하여 일기 등이 일문으로 쓰여졌다.

16)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18쪽.

17)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23쪽.

번역문, 기타 영미 회곡에 대한 논문 및 수상 등이 다수 실려 있어 김우진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우진은 1926년에 출가하여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일어 강습을 받으며 독일어 공부에 열중하였고¹⁸⁾ 궁극적으로는 외국으로 나가고자 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면 김우진의 외국어 실력을 알 수 있다.¹⁹⁾

탁월한 언어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김우진은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의 여러 외국어를 섭렵하면서 언어의 기원이나 특성,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말의 부흥과 개량에 대하여 분명한 주장을 확립하였다.²⁰⁾

김우진의 국문의식은 자국어에 대한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언어들을 섭렵하고 난 다음에 도달한 경험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우진은 스스로도 여러 언어들을 섭렵하고서 모국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자신의 자각을 아주 대견해 하고 자기의 모국어 발견에 스스로 감격하기도 하였다.²¹⁾

모국어에 대한 이러한 김우진의 확고한 의식이 오랜 외국 생활과 여

러 외국어의 섭렵을 통과한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1920년대 초에 벌써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것에서 그의 근대적 언어의식을 볼 수 있다.

2.2.2 김우진의 문학의식

김우진의 선구적 근대의식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그의 문학에 대한 인식이다. 근대 이전에는 문학은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나 독립된 영역으로 생각되지 않고 학문에 부수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창작에 대한 전문성이나 치열한 작가 의식이나 문학의 역할 등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었다. 문학에 대한 이러한 봉건적인 인식이 아직 팽배해 있을 때에 김우진은 확고한 문학의식을 확립하였다. 효자로 인정받던 김우진이 부친의 명을 거역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던 첫 번째 사건은 문학을 선택한 것이었다.²²⁾

김우진이 부친이었던 김성규는 사회개혁과 혁신정치에 대한 확고하고도 실천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실학적 유학자였다.²³⁾ 김성규는 18년간의 관직생활을 통해 혁신과 개혁의 정치로 망국의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²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18)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528쪽 : …요새 나는 독일어 공부에 좀 빳버서 곧 원고도 못 보내드렸습니다. 내월(來月) 오일이 강습회 종말이닛가 그 전에는 틈을 맨드러 곳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9)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524쪽 : … 칠월 중순 안에는, 실상 이곳에, 이 나라에 잇기 실으나, 好きな 지거(芝居)보는 것, 독서하는 것, 어학공부하는 것 만이 나를 붓들어 줍니다. 구월경에는 사요나라하겠소이다..

20)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358~364쪽. 言語의 特性 - 그 상징성, 227쪽.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중외일보, 1922.4.14.)

21)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445쪽, 1919.3.1일자 일기 : … 지금이야 각지(覺知)하였다. 사요년을 일본문(日本文)으로만 기록하여 오든 너의 일기가 이제 우리 본국문어(本國文語)로 기록됨을, 이 사똥스러운 국문으로 무의식으로 기록한 지 전일을 상(上)하야 조사흔지 삼일 전부터이다. 그뻬에는 아모 연유 업시 시작흔 너의 국문일기가 이제 너의 의식에 울났다. 느는 깃겨한다. 느는 깃겨한다 우리는 깃겨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사똥 하고 우리를 깃겨하여야 한다. 그러는 이제 일본문 기록의 종결하는 쓰음에 너의 홀 의무가 있다…

22)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422쪽, A protesto : … 그러기 때문에 평시(平時)에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한 일이 한 번이나 잇섯니? 다만 웅본(熊本)서 문과대학으로 갈 때, 진갈이 의장(衣裳) 문제를 내맘대로 押し通す할 때, 또 이번 내 출가(出家). 그 세 경우 외에는 나는 충실한 아들 노릇, 순한 남의 집 자제 노릇을 해 왔다…

23)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III,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62쪽 : …又有礪溪柳公礪溪隨錄茶山丁公與猶堂集等書皆親手謄寫者至今保存於家藏而 使家君齋志未就不辰之歎固如是矣…

24)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II, 草亭居士墓自誌, 21~25쪽, 長城郡守履歷書, 359~362쪽, 『草亭先生文集』 III, 從宦錄, 394~401쪽, 『履歷書』, 416~420쪽,

알고는 1905년에 치사하고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장성으로 귀향하였다. 그는 치사 이후 農業을 家業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 역시 철저한 유교적 관점에서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근대적 경영가의 안목과 수완으로 농업 을 근대적인 기업의 규모로 확장시켰고 토지 등 부동산의 매입과 경영 및 매매, 임업, 잠업 등에까지 손을 대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²⁵⁾

김우진은 이렇듯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집안을 경영하던 아버 지의 명에 따라 18세(1914년)때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동생 철진과 함께 日本의 熊本農業學校에 遊學을 가게 된다.²⁶⁾ 일본 유 학 초기에 김우진은 아버지의 뜻에 적극 공감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에 대단한 신념과 의지를 보이면서 3년간 이 학교에서 분투하고 졸업하면 귀국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²⁷⁾ 이처럼 농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김우진은 농업학교에서의 성적도 뛰어났으며²⁸⁾ 그후로 도 부친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다.²⁹⁾

『蔭仕』, 421쪽.

25)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三, 遺言書, 定款, 228~329쪽.

26)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一, 111쪽 : 送祐哲二兒遊學甲寅十二月三十日〇二十九日正午汽車送二兒於熊本農業學校其翌即除日也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17쪽~18쪽 : ... 아버지께서는 일본 구마모토(熊本) 농업학교를 졸업하셨다(1918). 농업학교로 진학한 것은 조부님의 명에 따른 것이었고 ...

27)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一, 368쪽 : 附 祐鎮在熊本答宗鎮書丙辰正月二十二日.

28)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17~18쪽 : ... 3년간의 평균은 80점이고 60명 중 종합 순위 18위였다고 한다(成澤 勝, 『金祐鎮의 熊本時節』, 『金祐鎮全集 2』, 1983, 전예원). 한편 아버지께선 농업학교 졸업논문 조선(朝鮮)에 있어서의 삼림 사업 일반(森林事業一般)(일본어)으로 영친왕(英親王)으로부터 5원의 상금을 받으신 일면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29)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I, 卷之一 : 船中吟示二兒 乙卯六月二十七日 又率二兒舟行向臨瀟附 祐鎮 哲鎮詩

푸른 파도 아득한데 한 점 배에 의지하니

滄波極日倚孤船

그러나 이처럼 부친의 뜻에 대한 철저한 공감과 순종, 그리고 농업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며 부친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김우진이 어떻게 문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갈등과 충돌의 과정을 겪었을 것은 자명하다. 김우진이 문학을 선택한 것은 그 때까지 자기를 지탱해 왔던 모든 봉건적인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면서 얻은 것이었으므로 그의 문학에 대한 의식은 투철하고 진지하였다.

그는 가벼운 오락 정도의 기분으로 문학에 접근하는 당시의 문사들에게 가식적인 소위 ‘문학청년’의 생활을 버리고 생명을 다해 통찰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창작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창작의 테마 또한 과거의 모든 계급과 가치를 뒤집어엎고 생활을 변혁시키고 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이처럼 이전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김우진은 고전과 전통의 계승을 주장하였다. 당시는 근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들떠 전통과 고전에 대해서는 지나친 폄하의 기운이 지배할 때였다. 그 때 김우진은 어느 민족의 민족성을 알려면 그 민족의 민요와 전설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순직한 본 모습이 드러나 있는 민요·속요와 동요·전설 등을 근대문학에 차용하여 우리 민족의 운율과 시형을 창출해야 하고 사라져 가는 민요·속요와 동요·전설을 수집하고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특히 김우진은 우리의 고전 중에서 『춘향전』에 대단한 애착을 보여 주변의 사람들로부

만상이 하늘의 위 아래에 가득 펼쳐져 있구나

萬象森羅上下天

소자가 명심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리니

小子銘心成父志

일찍이 충신과 효자가 신선을 일으켰음을 들었노라

夙聞忠孝起神仙

30)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63~69쪽, 創作을 勸함내다, 『Societe Mai』 제삼집, 1925. 9月刊.

31)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239~241쪽. 朝鮮 말 엮는 朝鮮文壇에 一 言.

터 ‘준향박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³²⁾

우리의 고전과 전통의 계승과 부활을 강조하면서도 김우진은 외국문학의 수입과 번역을 통하여 우리의 경직되어 가는 정신을 새롭게 하고 어풍(語風)과 문맥(文脈)의 새로운 사용을 통하여 언어의 사용법을 넓히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고사되어 가는 우리의 문단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³⁾

이상에서 살펴보면 김우진은 이미 철저한 창작의식과 치열한 작가의식³⁴⁾을 확립하였고, 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전통의 계승과 외국문학의 수입 등을 통한 문학의 발전 방법 등을 통한 근대적 문학의식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아직 근대의식이 균형있게 확보되지 못하였던 근대의 전환기에 근대를 넘어선 현대성의 모습까지 보여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 가는 문학의식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까지 보여진다.

3. 김우진의 문학활동

김우진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작품으로 최초로 쓰여진 것으로는 17세(1913년)때에 쓴 소설 〈空想文學〉이다. 이 소설은 그가 일본에 건너가기 전 목포에서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를 1년 수료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우진은 일본에 건너가서 웅본농업학교에 재학하면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다. 김우진의 최초의 시작품은 1915년에 웅본 농업학교

에 입학한 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日文詩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³⁵⁾이다. 이후 김우진의 시 창작은 1926년 가출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김우진의 공식적인 문학활동은 1921년에 早稻田大學 大學部 문학과에 진학하면서부터였다.⁴⁸⁾ 그러나 의욕적으로 출발한 김우진의 문학활동은 그 해 여름 방학을 이용한 ‘동우회순회연극단’의 전국순회공연 이후 중단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포에서도 공연되었던 파격적인 연극활동에 대해 부친과의 갈등이 심각하였을 것이고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문학적 행보를 접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김우진은 별다른 활동없이 학교생활을 지속하였고 1924년 봄에 대학을 졸업하고 목포로 돌아와 부친을 도와 가업을 운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교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창작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 고 하였다.⁴⁹⁾

김우진의 문학활동은 1925년 4월에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⁵⁰⁾라는 평론을 『개벽』에 게재하면서 재개되었다. 그는 1925년 5월에는 목포에서 문학 동인회 ‘Societe Mai’를 조직하고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수의 평론과 희곡 창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가 의욕적으로

32)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484쪽. 1922년 3월 10일자 일기에서.

33)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242쪽. 『朝鮮 말 업는 朝鮮文壇에 一言』.

34)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73쪽.

35)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Ⅰ, 310쪽. 日文詩,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1915년) :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 헤어보면 어언 14년/엿집 처마 밑 // 아버지의 뜻은 무엇? / 훌륭한 사람은 무엇? / 불초한 자식은 여전히 알 길 없고 // 유학(遊學)의 몸이 된 때가 있어 / 꿈은 고향으로 달려가건만, / 꿈의 원천인 어머니를 위해선 / 어떤 꽃을 가지게 할까. / 늙으신 아버지는 어디에 / 안식의 지봉을 세워야 하나. /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 (詩 全文)

48)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30~37쪽.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1921.6. 學之光 22호에 발표)

49)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507쪽. 1924년 8월 24일 일기 : 조명희(趙明熙) 군의게

50)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272~292쪽 : 『我觀 ‘階級文學’과 批評家』 (1925.4)

재개했던 문학활동 역시 1년 남짓에 불과하였다. 김우진은 1926년 5월 이후 가출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8월 4일 귀국하는 배에서 윤심덕과 동반 투신자살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

김우진이 남긴 작품으로는 시가 53편(한시 5수, 일문시 9편 포함), 논문 및 평론 18편, 희곡 5편, 소설 3편, 번역 작품 2편 등과 다수의 논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의 사후에 공개되었다.⁵¹⁾ 김우진이 남긴 많은 작품들을 보면 그의 자전적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 알려지지 않은 김우진의 삶과 그의 사상들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우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주로 그의 희곡과 극작가로서의 면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김우진에 대한 연구가 연극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희곡작품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근대성과 그의 극적인 인생역정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희곡사와 연극사에서 그의 연구가 집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김우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구의 성과는 연구자들의 관점의 선택이었지 김우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1 시인 김우진

김우진이 남긴 시는 총 53편이다.⁵²⁾ 이 시들은 김우진이 일본으로 유학한 1915년부터 가출하기 직전으로 보여지는 1926년 5월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쓰여졌으며 대부분의 시는 생전에 발표되지 않았다.

김우진은 시인이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시인이기를 소망했으

며⁵³⁾ 그가 가장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도 시 창작이었고 작품의 분량으로도 가장 많은 양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사상의 궤적과 문학 활동의 변모과정을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그의 시작품에서이다.

그러나, 그의 희망와는 달리 김우진은 생전에도, 사후에도 시인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김우진에 관한 연구가 주로 그의 희곡작품과 극작가로서의 연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우진의 실체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인으로서의 면모와 시작품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우진의 시작품의 전모는 『김우진전집』 I⁵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김우진전집』 I에서는 김우진의 시를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누고 있는데⁵⁵⁾ 본고에서는 이 분류를 따르지 않고 『김우진전집』 I에 실려있는 시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인 분류를 하고자 한다. 김우진이 남긴 일기와 시 등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아래 정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장의 시들이 정리된 것은 1925년 6월경으로 보이는데⁵⁶⁾ 이 때는 김우진이 새롭게 문학 활동을 재개하던 때이다. 김우진은 자신의 문학인생을 재출발하면서 문학을 선택할 때까지의 갈등과 번민, 그리고 다시 문학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라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우진이 남긴 시 중에서 먼저 시작활동을 시작한 1915년의 시부터

51)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II, 연극과 인간, 2000년.

52)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06~403쪽. : 일문시 9편을 포함한 근대시 48편(책에는 49편으로 계산하고 있음)과 한시 5수를 합한 편수임.

53)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468쪽. 1919. 4. 20일자 일기에서 : ... 속류(俗流)는 시를 치(嗤)하도 흥여도 느는 시인이 될 것을 바란다. 불만족, 증오한 현실을 도피해야 느의 갈 바는 이 환각의 세계 뿐이다. 전일(前日)과 모무(暮霧) 중에서 엄연(淹然)히 자연의 뜻듯 품 속에 들 것이다.

54)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06~403쪽에 그의 시 53수가 실려 있다.

55)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06쪽.

56)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40쪽.

1922년 2월까지의 시 14편을 초기시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시들은 대체로 김우진이 문학활동을 시작한 초기에 쓰여진 것들로 대부분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맨 앞쪽에 1919년에 쓴 〈아버지께〉라는 시가 놓여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시는 김우진이 웅본농업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 早稻田大學에 입학했을 때이다. 농업을 가업으로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유학 보내 가업을 계승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기대를 뿌리치고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선택하기까지의 험난했던 부친과의 갈등을 이 시에서 엿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순탄치 않은 그의 미래를 예견하였던 시라고 할 수 있다.⁵⁷⁾

2장은 1921년부터 1926년 5월까지 쓴 시 27편을 묶어서 후기시로 분류하였다. 이 시들은 대부분 문학활동을 재개한 1925년 이후의 작품들이다. 이 시들 역시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1921년부터 1923년까지는 연도가 뒤섞여 있다. 그런데 2장의 맨 앞쪽에도 1장과 같이 1923년 9월에 쓴 일문시 〈옛 것의 붕괴〉와 같은 내용의 우리말 시 〈古의 崩壞〉가 실려 있다.⁵⁸⁾ 이 시를 썼던 1923년은 김우진이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모든 문학활동을 중단하고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었을 때이다. 어찌 보면 김우진이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자신의 뜻을 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이다. 그러나 김우진의 내면에서는 이 때 이미 ‘모든 전통

의 연계’⁵⁹⁾에서 빠져 나온 자신과 자신의 내부에 감추어진 다이내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이 옛 것을 붕괴시킬 것임을 암시한다. 즉, 신문화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자신이 구문화의 상징인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근대예의 행보를 멈추었지만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한 새로운 기운은 옛 것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신념을 여전히 품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선택한 문학적 행보는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도 중단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또, 여기에 실려 있는 시 27편 중에서 1926년 3월부터 5월 가출하기 직전까지 쓴 시가 14수나 실려 있다. 이는 가출하기 직전의 김우진의 폭발적인 문학에의 열정과 멈출 수 없었던 창작에 대한 충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은 1921년에 쓴 작품들 중에서 6수만을 따로 분류하였으며 4장은 김우진의 초기시들 중에서 다시 7편의 시를 선별한 것들로 3,4장 모두 김우진이 선별하여 분류한 것이다.

김우진의 시작품들을 살펴 보면 근대문학 이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우진이 한시창작에 능하였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김우진이 방학하여 귀향하면 부친은 자식들을 데리고 선조들의 묘소를 돌아다니면서 효와 가문의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큰 일 중의 하나였다. 아래의 시는 김우진이 웅본농업학교에 입학한 첫 해(1915년) 여름에 귀국하였을 때 전남 무안군 임치(臨淄)면에 있는 김성규의 첫 부인이었던 풍산 홍씨를 성묘하면서 흐뭇해 하는 부친의 시에 화답한 시이다.

푸른 파도 아득한데 한 점 배에 의지하니	滄波極目倚孤船
만상이 하늘의 위 아래에 가득 펼쳐져 있구나	萬象森羅上下天
소자가 명심하여 아버님 뜻을 이루리니	小子銘心成父志

57)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07~309쪽, 〈아버지께〉 : …(생략)엇지면 그갓히도 따뜻하게 / 나의 몸을 검쳐 안으면서도, / 엇지면 그리도 / 내의 가는 燈불에 바람질 하심닛가. / 정상시럽게도 흰 이를 / 악물며 / 엇지나 畏怖의 춤을 / 그갓히 팻혀 쥘심닛가 // (생략) 나로부혀 나왔스되 / 永久히 도라오지 안는 것, / 맞치 해저 립자를 잡으라는 / 헛됨을 뵈받지 맙시오 //(생략)(1919)

58)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41~342쪽, 〈옛 것의 붕괴〉 : … 옛 것은 이같이 무너진다 / 자신의 내부에 감춘 / 다이내마이트는 / 건설해 놓은 모든 것을 / 서서히 강력하게, 또한 분명하게/무너뜨린다! / 오오, 자연의 힘이어! / 옛 것은 붕괴된다.

59)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 483쪽, 1921년 11월 26일자 일기에서.

일찍이 충신과 효자가 신선을 일으켰음을 들었노라 夙聞忠孝起神仙⁶⁰⁾

이처럼 명심하여 부친의 뜻을 이루겠다는 김우진의 결심은 일본에서의 수학기간이 길어지고 근대적 사고방식과 교육에 젖어들면서 자신을 얽어매었던 봉건의 사슬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처음의 각오와 달리 개성과 자아를 따르는 근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의 시는 早稻田大學 大學部 문학과에 진학한 이듬해(1922년) 여름방학에 쓴 시이다.

새들은 맑은 하늘을 희롱하며 절벽에서 날고	鳥弄晴雲翔絕壁
고기들은 낙조에 번득거리며 푸른 물에서 뛰노네	魚翻落照躍清灣
십 년 동안 책을 읽어서 무엇을 이루었나	十年負笈成何事
공연히 아버지만 늙어서도 한가롭지 못하게 하였네	空使吾親老未閒 ⁶¹⁾

이 시에서 김우진은 일본에 유학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만 괴롭혔다는 후회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자신이 부친의 뜻을 거역하고 문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갈등과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문학적 행보를 접어야만 하는 복잡한 자신의 심경이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김우진은 早稻田大學 大學部 문학과에 진학하였던 1921년에 썼던 시들 중에서 6편의 시들을 따로 분류하여 묶었는데 이를 제3장으로 분류한다. 이들 시들은 〈哀樂曲〉, 〈春湖行〉, 〈봄바람과 비〉, 〈細枝上的 生光〉, 〈春江花月夜〉, 〈봄의 戀人〉, 〈春湖〉 등의 제목에서부터

전통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²⁾.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도 전통과 근대의 혼재 양상을 볼 수 있다. 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한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서구적 근대시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미처 세련되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 있어 근대 이행기의 전통과 근대의 교체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한다.

또 김우진은 초기시들 중에서 7편의 시를 선별하여 ‘로맨티시즘의 시’라고 분류하였으므로 이 시들을 묶어 4장으로 분류한다. 이 시들은 〈아버지께〉, 〈哀樂曲〉, 〈내 어이하랴〉, 〈異國의 小女〉, 〈사랑의 가을〉, 〈秋思- for music〉, 〈思想의 壽衣를 弔喪하는 修難者의 歎息〉 등인데 이들 시 위에 김우진은 ‘이것은 舊稿로부터 더러낸 것이외다. 自信이 있다는 것보다도 至今와서 도라보면 내의 精神的 遍路가 限업시 애처로움을 주는 까닭이외다.’라는 글을 붙이고 있고, 이 시들 밑에는 다시 ‘以上은 내의 Romanticism의 時代외다. 저거도 以上 최후에 실린 시까지는 그러소이다. 現在 내의 生覺을 支配하고 있는 詩 數篇은 次號에 내겠슴니다. 다음 號엿것을 다 보시기 前에는 批評을 保留해 두시오’하고 당부하고 있다.⁶³⁾ 이 시들은 김우진의 문학적 행보가 막 시작되고 이국소녀와의 짧은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의 시들이라고 생각된다. 김우진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사상과 감정의 자유를 만끽하였던 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때를 자신의 〈로맨티시즘 시대〉라고 명명하여 아끼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김우진의 후기시로 볼 수 있는 1926년의 시들은 형식에 있어서는 근대시의 형식을 완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이전의 한시나 시조 등의 전통시가의와 혼재양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근대시의 단계로 접

60)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一, 112쪽 : 船中吟示二兒 乙卯六月二十七日 又率二兒舟行向臨淄附 祐鎮 哲鎮詩.

6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二, 175쪽 : 題華陽亭五首 壬戌閏五月二十七日即初伏日

62)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82~394쪽 : 〈哀樂曲〉, 〈春湖行〉, 〈봄바람과 비〉, 〈細枝上的 生光〉, 〈春江花月夜〉, 〈봄의 戀人〉, 〈春湖〉

63)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396쪽.

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무렵의 시들에서도 그의 다른 문학 작품들에서 보이는 표현주의적 기법이나 상징적인 기법 또는 심리주의 기법 등을 볼 수 있어 김우진의 앞서나가는 문학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우진이 쓴 마지막 시는 〈어린애만 되었드면〉⁶⁴과 〈죽엄의 일흠〉⁶⁵인데 두 시 모두 과열할 것 같은 괴로움에 휩싸인 절박한 심경과 죽음에라도 기대어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김우진의 안타까움이 한 없이 느껴지는 시라고 할 수 있다.

3.2 비평가 김우진

『김우진전집』Ⅱ에 의하면 김우진이 남긴 평론은 모두 16편에 달한다. 이중 연극평론이 11편(일문 4편 포함), 문학 평론이 6편(일문 3편 포함)에 해당된다. 또한 논문 1편과 수상 15편(일문 2편)까지를 포함한다면 김우진이 남긴 평론류는 그가 남긴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김우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과도기나 전환기에는 창작보다 비평

의 시대가 먼저 온다고 하면서’ 전환기에는 ‘신고(新古)의 충돌, 계급의 쟁투, 혁명과 보수의 피다툼’이 생기는데 이 곳에서 비평이 생기며 역사상의 모든 새 조류(潮流)와 새 사변(事變)의 앞에는 반드시 이 비평의 시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⁶⁶고 하여 과도기와 전환기에 비평이 창작보다 우선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우진의 평론활동은 1921년에 발표한 연극평론 ‘소위(所謂) 근대극(近代劇)에 대(對)하여’⁶⁷로 시작되지만 대부분은 문학활동을 재개한 1926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된다. 이 때 발표된 평론들은 「李光洙流의 文學을 埋葬하라」, 「自由劇場 이야기」, 「우리 新劇運動의 첫 길」, 「築地小劇場에서 〈人造人間〉을 보고」 등이다. 김우진은 특히 1926년 1월부터 6월 28일까지 시대일보에 「歐米 現代劇作家(紹介)」라는 연재물을 통해서 영국의 A. A. Milne, 이태리의 Luigi Pirandello, 체코의 Karel Capek, 미국의 Eugene o’Neill 등의 구미극작가들을 소개하였다. 이 글은 당시⁶⁸는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비평솜씨를 보여 주는 ‘매우 up-to-date 한 論’이라는 평가를 받았다.⁶⁹ 김기진⁷⁰은 김우진은 창

64)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Ⅰ, 379~380쪽. 〈어린애만 되었드면〉: 갈사록 갈사록 / 곳치지 못할 傷處에 / 눈물이 나오는구려. // 건되다 못해 울어 보오만 / 이 건 또 왜 이리 속속까지 / 불뎀이 든 것처럼 뜨겁습닛가. // 내가 萬一 어린애만 되었드면 / 가슴이 압혀서 운다고 / 어머니가 醫師를 부를 테지만 // 내가 萬一 어린애만 되었드면 / 속 탄다고 어머니가 / 冷水라도 갖다 줄 테지만. // 萬一 내가 어린애만 되었드면 / 病들었다고 / 하로밤만 便히 자고 나면 고만이겠지만. // 어린애가 아닌 나이기 때문에 / 이 傷處는 / 漸漸 깊어 갑니다 그러 // 오 내가 어린애만 되었드면! (1926.5.14)

65)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Ⅰ, 381쪽. 〈죽엄의 일흠〉: 에네르기의 배꼽지라고, / 榮光의 主流라고, / 나는 네 일흠만 붙은다만, / 네 일흠만 붙은다만 / 이 가슴속을 / 내가 알아 줄 수 있겠니. // 부들켜 쥐이고서/터져라 하고 울어 보기도 하지만 / 그러나 아! / 네일흠은! / 네 일흠은! / 네 일흠은! / 나를 救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1926.5.14)

66)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92~110쪽 : 「우리 新劇運動의 첫 길」, 『조선일보』 1926.5

67)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30~37쪽,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 『학지광』 22호, 1921.6.

68) 김기진, 〈水山兄에 對하여 가졌든 몇 가지 希望〉, 『朝鮮之光』 71, 1927.9.(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29쪽에서 재인용) : …나는 그의 創作보다는 그의 外國 戲曲 作家의 紹介-再昨年 時代日報 紙上에 數個月間 連載되었었다-를 흥미있게 읽었다. 年前 朝鮮之光 紙上에 掲載된 春園의 「中庸과 徹底」一文에 대한 攻擊文을 敬服하여 읽은 일이 있다. 그의 筆鋒은 峻烈하고 그의 考證은 該博하였었다. 나는 그때에 그 一文을 보고서 水山兄은 批評家가 되어 주었으면 조kert고 어떤 友人에게 말한 일까지 잊었다. …

69) 金秉喆,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上)』, 을유문화사, 1980(1998), 402, 496쪽 : 미국의 대표적 작가 유-진·오-닐(現代歐米劇作家(紹介) 其四, 金水山, 時代日報, 1926. 5.30~6.28)

「自由劇場 이야기」, 金水山, 〈開闢〉 7:5, 1926. 5.1

작가로서보다는 비평가-문예비평가로서의 소질이 더 많았다고 회고하였다. 이처럼 김우진의 문학 활동이나 남긴 작품의 양, 그리고 주변인들의 평가와 그의 평론의 실제적인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평론가로서의 김우진의 위상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3 극작가 김우진

지금까지 김우진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극작가로서의 김우진과 그의 희곡작품에 대해서이다.

1966년 『한국신극사연구』⁷¹⁾에서 김우진의 생애와 작품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뤄진 이래 김우진에 관한 연구는 극작가로서뿐 아니라 연극 비평가이자 연극 운동가로서의 연구와 그가 남긴 5편의 희곡작품에 대한 연구 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그에 대한 연구 논문만도 50여 편에 이르고 있다.

김우진이 신극운동에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 공식적인 문학 활동이 연극평론⁷²⁾이었으며 그해 여름방학 때는 동우회순회연극단의 무대감독으로 전국을 순회공연하면서 최초의 근대극 운동을 벌였으며 그의 평소의 희망 역시 ‘新劇運動에 獻身’⁷³⁾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김우진이 근대극에 대하여 기대하고 집착하였던 이유는 ‘근대극이 결국은 인류의 영혼의 해방 구

제를 사명으로 하고 또 사회적 민중의 교화와 오락을 목적으로 하여야 인류의 공동생활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극은 ‘인생의 진(眞) 활동’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⁷⁴⁾ 또 그는 당시의 민중을 계몽시키는 것은 ‘신극 운동’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⁷⁵⁾

연극의 역할과 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비하여 김우진의 희곡 창작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아주 소략하였다. 김우진의 희곡창작은 그가 문학 활동을 재개한 1925년 이후부터인데 그가 남긴 희곡 작품은 모두 5편에 불과하며⁷⁶⁾ 생존시에 발표한 것은 〈두더기 詩人의 幻滅〉뿐이다. 창작 당시에 김우진의 희곡에 대한 평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⁷⁷⁾ 아마도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파격적인 내용과 근대성을 뛰어넘어 현대성을 보이는 그의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

70) 김기진, 〈水山兄에 對하여 가졌든 몇 가지 希望〉, 『朝鮮之光』71, 1927.9.(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29쪽에서 재인용)

71)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1966초판).

72)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30~37쪽,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1921.6. 학지광 22호)

73) 김기진, 〈水山兄에 對하여 가졌든 몇 가지 希望〉, 『朝鮮之光』71, 1927.9.(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29쪽에서 재인용)

74)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30~37쪽,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1921.6. 학지광 22호), 37쪽.

75)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94쪽, 『우리 新劇運動의 첫 길』: … 확실히 이 자리에 안저서 조선 민중도 참다운 새 시대의 새 인생을 창조하는 한길로 무엇 보라도 먼저 신극 운동을 이리켜야 하겠다는 요구는 누구나 암암리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언한다 …

76)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Ⅰ: 〈喜劇 두더기 詩人의 幻滅〉 16~30쪽. (1925.12), 〈李永女〉 31~67쪽, 〈難破〉 68~100(1926.5.3~1926.5.7) 〈山돼지〉 101~174쪽. (1926. 7.13), 〈喜劇 正午〉 175~183쪽.

77) 김기진, 〈水山兄에 對하여 가졌든 몇 가지 希望〉, 『朝鮮之光』71, 1927.9.(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29쪽에서 재인용): …그의 死後 나는 비롯오 그의 作品 創作 戲曲만을 가지고 말한다. 『두더기 詩人』, 『山돼지』 二篇을 보았다. 論文 或은 翻譯 等은 그의 生前에도 數篇을 읽은 일이 잇섯슴으로 創作上의 그의 手腕을 期待하든 터이었는데 나는 以上の 二篇을 읽고서 多少 期待에 對한 報酬로는 모자람이 잇는 것을 느기엇섯다. 두더기 詩人은 지금은 잘 記憶하지 못하나 그 때의 讀後感으로 아직까지 남아 잇는 印象은 ‘이것은 다만 漫然히 쓴 散文 詩의 一種인가한 것이었다. 『山돼지』도 지금은 도모지 김히 들어서서 批評할 수는 업스나 말하자면 그것은 정말 草稿에 지나는 것이 아니엇다고 생각한다…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Ⅱ, 548~549쪽. 창신생(昌伸生)〈김군의 처녀작을 평(評)한다〉.

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그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김우진은 “20년대의 귀재”⁷⁸⁾라고 평가되거나 ‘회곡사상 인습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장 절박하게 부르짖은 극작가’⁷⁹⁾로, 또는 ‘사실주의나 표현주의의 방법을 자신의 작품 속에 적용시키는 의미있는 실험을 한 극작가’⁸⁰⁾로, ‘서구 극문학을 가장 본격적으로 배운 작가로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예술적 처리로 극복하려고 애를 쓴 작가’⁸¹⁾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그의 회곡을 기호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연구 등이 계속되고 있다.

3.4 소설가 김우진

소설가로서의 김우진이 연구된 적은 없지만 김우진이 쓴 최초의 문학작품은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 일년을 수료하던 해인 1913년 (17세)에 쓴 <공상문학 空想文學>⁸²⁾이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제목 밑에 ‘1913.6~8.3’까지의 날짜와 ‘正路生 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휘트먼의 시가 영어로 적혀 있다.

소설의 내용은 고등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女文士에의 꿈을 키우던 순자라는 신여성이 결혼과 함께 자신의 꿈을 접고 살아가다 당대의 유명한 소설가를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흠모와 문학에의 열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그 소설가의 자살소식을 접하고는 상심하여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소설은 김우진의 소설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자전적 환경을 드러내는 경향이 보여 주목된다. 또 당시에 보이던

신소설의 모습보다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 하나의 소설인 <동굴 위에 선 사람>⁸³⁾은 제목 밑에 ‘小林夢哲, 1921. 6. 30. 金焦星 作. 1920. 1. 1. 三岐에서’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가 문학에의 길을 선택하고 早稻田大學에 진학하였을 때이다. 이 소설은 당대의 지식 청년들이 겪는 정열과 이성의 갈등, 사상과 행위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사건의 전개보다는 신·구 문화의 충돌에 따른 가치관의 갈등 등 심리 묘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첫 번째의 소설에 비해 발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다음은 <芳蓮은 어찌하여 癡病의 남편을 완쾌시켰는가>⁸⁴⁾인데 제목 아래 ‘옛 조선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 우리 고유의 전설을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전과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자신의 주장을 실제로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의 배경과 인물,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자기 가정의 이야기와 일치되는 듯 하여 자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김우진의 문학활동의 영역으로 번역을 들 수 있는데 소설 <영웅>(다난치오 작)과 회곡 <워렌 夫人의 職業>(버나드쇼 작)이 모두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근대전환기에 활동하였던 극작가이자 비평가로 알려진 김우진의 문학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근대 문학의 수용과정에 대하여

78) 유민영, 『초성 김우진 연구(上)』, 『한양대학교 논문집』 5, 1971, 89쪽.

79) 유민영, 『한국현대회곡사』, 흥성사, 1982, 156쪽.

80) 서연호, 『한국근대회곡사연구』, 고려대출판부, 1982, 147쪽.

81)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28쪽.

82)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187~249쪽 : <공상문학 空想文學>

83)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250~277쪽 : <洞窟 위에 선 사람>.

84)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 278~303쪽 : <芳蓮은 어찌하여 癡病의 남편을 완쾌시켰는가>

살펴보았다.

근대전환기는 그때까지 유지되어 오던 구문화가 새롭게 유입된 신문화와 만나 충돌과 갈등을 거치면서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문화와 신문화의 충돌의 강도는 시대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당대의 귀재이자 선구적 지식인이라고 평가되는 김우진의 경우, 아버지로 상징되는 구문화와의 갈등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전환기의 적응의 한 방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김우진에 관한 연구가 그의 희곡과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여 그의 문학 활동에 관한 연구가 그의 전반적인 문학 활동-시인, 비평가, 극작가, 소설가, 번역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김우진에 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의 모든 문학작품의 분석과 해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백낙청, 『문학과 예술에서의 근대성 문제』, 창작과 비평, 1993 겨울호.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연구』, 고려대출판부, 1982.
 서연호, 「인습과 전통을 거부한 근대극 운동의 기수, 김우진」, 『문화와 나』, 삼성문화재단, 2000, 3·4.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2.
 유민영, 「초성 김우진 연구(上)」, 『한양대학교 논문집』 5, 한양대학교, 1971.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1966초판).
 이은경, 「수산 김우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장선희, 「근대전환기 新·舊 文化의 衝突과 受容에 관한 연구 -목포지역 金星圭와 金祐鎭의 경우-」, 『고시가연구』 제1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8.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 ① 김우진』, 태학사, 1996.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 참고문헌

1. 자료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I-III, 『한국역대문집총서』 1778~1780, 경인문화사.
 서연호·홍청수편, 『김우진전집』 I-III, 연극과 인간, 2000년.

2. 저서 및 논문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18쪽.
 金秉喆,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上)』, 을유문화사, 1980(1998).
 김상태 편, 「근대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문학」, 푸른사상, 2003.

〈Abstract〉

A Study on a Process of Reception for Modern Literature

-In the Case of Kim, Woo-jin-

Chang, Sun-hee

This study looks into the literary activities of Kim, Woo-jin who was both a playwright and critic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 times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of reception for modern literature in Korea.

In this study, the turning point to the modern stage is regraded as the period from 1860 to 1945. The author of this study prescribes this period as having characteristics of harmony and union which were achieved through a fierce conflict and discord between the old culture which had been preserving the order of society and a new society with its own influences.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old and new cultures appears to differ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and situation. In the case of Kim, Woo-jin, it can be seen that old and new cultures had their intense conflicts because he could not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himself as a representative of the new society and his father who symbolized the old culture and

consequently committed suicide.

Until now, the studies on Kim, Woo-jin have only focused on his plays and theatrical activitie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im as a poet, critic, playwright, novelist, and translator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alyze his overall literary activities and achievements.

Key word : Kim, Woo-jin, critic, playwright, novelist, translator